

본 자료는 특수건물이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담보토록 확대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9년간의 풍수재해 1,960건을 중심으로 본 협회가 풍수재해 현황을 분석, 발간한 “풍수재 위험관리”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1. 연도별 피해 현황

풍수재가 발생하지 않은 92년을 제외하고, 87년도에 특수건물 전체 풍수재 발생 건수의 43.52%인 853건으로 가장 많은 물건이 피해를 입었다. 87년의 우리나라 풍수재 총 피해액은 1조 1천4백82억원에 달하였으며, 사상

및 실종된 인명 피해는 1,022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87년 7월과 8월의 태풍 THELMA와 DINAH 그리고 집중 호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 참조)

91년은 148건의 풍수재가 발생하였으나, 지급 보험금은 1백37억7천6백만원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87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1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도 9천3백8만5천 원이나 되어 전체 평균 지급 보험금 2천5백93만1천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91년의 피해액이 많은 이유는 148건의 풍수재 발생 건수 중 공장이 9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의

일부 공장에서 대형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피해가 적은 해는 88년으로써 전체 풍수재 발생 건수의 0.56%인 11건이 발생했다. 88년의 우리나라 풍수재 총 피해액은 1천2백88억원이며, 사상 및 실종된 인명 피해는 143명으로 84년 이후 가장 적은 피해를 나타내었다.

2. 지역별 피해 현황

부산 지역이 전체 풍수재 발생 건수의 54.49%인 1,0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서울 657건, 인천 143건, 대구 60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가장 피해가 적었던 지역은 전주이며, 전체 풍수재 발생 건수의 0.15%인 3건이 발생하였다.

1건당 평균 피해액은 부산이 2천9백14만8천원, 서울이 2천7백37만6천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는 1백43만3천원으로 1건당 평균 피해 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3. 화재와 풍수재의 비교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지급 보험금과 풍수재로 인한 지급 보험금을 비교한 것으로 89년 이후의 Pool 해체 물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획/풍수재 대책

특수건물의 풍수재 현황

<표 1> 연도별 피해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 도	'84	'85	'86	'87	'88	'89	'90	'91	계
풍수재 발생 건수	60	119	130	853	11	327	312	148	1,960
지급보험금	1,496,664	2,516,734	310,766	10,670,580	59,910	12,442,989	9,551,689	13,776,611	50,825,943
1건당 평균 금액	24,944	21,149	2,390	12,509	5,446	38,051	30,614	93,085	25,931

註 : '89~'91년에는 특건중 Pool 해체물건 포함됨. 92년도 풍수재 없음

〈표 2〉 지역별 피해 현황

(금액단위: 천원)

시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대 전	광 주	전 주	계
풍수재 발생 건수	657	1,068	60	143	13	16	3	1,960
지급 보험금	17,986,158	31,130,683	86,018	1,453,912	97,542	49,541	22,089	50,825,943
1건당 평균 금액	27,376	29,148	1,433	10,167	7,503	3,096	7,363	25,931

註: '89~'91년에는 특건중 Pool 해체물건 포함됨.

지난 8년간 풍수재로 인한 피해액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초과한 해가 두번이나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보험업계의 위험 관리 활동이 화재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풍수재 위험 관리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3〉 참조)

〈표 3〉 화재와 풍수재의 비교

(금액단위: 천원)

연 도	풍수재 지급 보험금(B)	풍수재 발생 건수	화재 지급 보험금(C)	화재발생 건수	화재와 풍수재의 비교(B/C%)
'84	1,496,664	60	3,655,175	314	40.95
'85	2,516,734	119	8,880,161	353	28.34
'86	310,766	130	2,980,123	371	10.43
'87	10,670,580	853	9,238,262	508	115.5
'88	59,910	11	11,912,258	622	0.5
'89	3,647,838	249	9,633,942	653	37.86
'90	4,421,904	110	26,112,426	395	16.93
'91	13,687,896	131	9,059,875	191	151.08

註: 특건중 Pool 해체 물건은 미포함됨.

4. 강수량과 풍수재의 비교

강수량 통계는 1961년~1991년까지 30년간의 자료이며, 풍수재 통계는 1984~1991년까지 8년간의 자료로서 강수량과 풍수재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위의 비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강수량과 풍수재와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풍수재 발생이 지역 여건, 즉 하천변의 저지대, 배수 조건, 인구 밀집도 등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

이라 할 수 있다. (〈표 4〉 참조)

5. 용도별 피해 현황

아파트가 전체 풍수재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9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주로 아파트의 보일러·변압기 등의 고정 설비가 지하 또는 저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등 아파트 물건의 특성 때문이며, 반면에 아파트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6%로 1건

당 평균 피해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파트의 풍수재가 창문 및 환풍기 파손 등 소형 사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장은 전체 풍수재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41%인 반면에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58%로 피해액이 가장 큰 업종이었으며, 1건당 피해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표 4〉 강수량과 풍수재 비교

(금액단위: 천원)

지역	구분	1시간 최대 강수량(mm)	1일 최대 강수량(mm)	년최대 강수량(mm)	년평균 강수량(mm)	풍수재 발생 건수	지급 보험금
서 울		118.6	354.7	2,355.5	1,369.8	657	17,986,158
부 산		89	250.9	2,200.5	1,472.7	1,068	31,130,683
대 구		80	210.1	1,564.6	1,030.6	60	86,018
인 천		103.3	347.5	2,009.8	1,170.1	143	1,453,912
대 전		79.1	303.3	1,880.7	1,351.7	13	97,542
광 주		70.1	315	2,020.4	1,356.8	16	49,541
전 주		109.6	336.1	2,074.4	1,296.2	3	22,089

註: '89~'91년의 특건중 Pool 해체물건 포함됨.

6. 월별 피해 현황

월별 발생 건수에서는 7, 8, 9월에 1,761건(89.84%)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7, 8, 9월이 4백73억4천8백30만원(93.16%)으로써 풍수재 발생 시기가 7, 8, 9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연평균 강수량의 2/3 이상이 6~9월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매년 이 기간중에 2~3개의 태풍이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7. 지역별 업종별 현황

서울 지역은 약 47%가 아파트에서 피해가 발생되었고 그 다음이 4층이상(이하 '4층'으로함), 공장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부산 지역은 약 47%가 공장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다음이 아파트, 4층 순으로 나타나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 지역은 공장이 55%를 차지하여, 부산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지역은 약 77%가 아파트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빈도만으로 볼 때는 아파트의 피해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 1건당 피해 금액은 부산 1백95만8천원, 대구 1백14만2천원으로 서울의 2천9백71만5천원, 인천의 9백45만원에 비해 건당 피해액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산·대구 지역의 아파트가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표

<표 5> 업종별 풍수재 현황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풍수재 발생 건수	지급 보험금	1건당 평균 금액
아 파 트	744	10,147,033	13,638
시 장	23	1,081,759	47,033
옥 판	19	1,363,573	71,767
4 층	413	5,944,531	14,393
창 고	12	202,667	16,888
병 원	14	271,450	19,389
학 교	4	16,897	4,224
호 텔	10	377,983	37,798
극 장	1	3,510	3,510
국 유	25	617,139	24,685
유 흥 음식 점	1	11,643	11,643
공 장	694	30,787,758	44,362
계	1,960	50,825,943	25,931

6) 참조)

8. 연도별 지역별 현황

84년에는 서울, 부산, 인천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으나, 대구, 대전, 광주, 전주는 피해가 없었다.

85년에는 총 119건중 서울이 89건을 차지하여 서울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구·대전·광주·전주는 피해가 없었다.

86년에는 총 130건중 부산이 77건을 차지하여 부산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전·광주는 피해가 없었다.

87년에는 총 853건중 부산이 498건, 서울이 230건, 인천이 88건, 대구가 29건 발생하여 각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89년에는 총 327건중 부산이 309건을 차지하여 부산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인천·대구·전주는 피해가 없었다.

90년에는 총 312건중 서울이 255건을 차지하여 서울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전은 피해가 없었다.

91년에는 총 148건중 부산이

119건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전과 전주는 피해가 없었다.

92년에는 풍수재가 다행히 없었다.

9. 지급 보험금이 1억원 이상인 물건

풍수재로 인한 지급 보험금이 1억원 이상인 물건은 56건이며, 이 56건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32건, 부산이 23건, 인천이 1건으로 서울과 부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건들은 손실의 심도(severity)가 매우 높은 건물들로서 Underwriting시 주의가 요망되는 건물들이다.

10. 풍수재가 2회 이상 발생된 물건

지난 9년간 풍수재가 2회 이상 발생된 물건은 251건으로 이들 물건들은 풍수재가 상습적으로 발생, 위험의 역선택 가능성이 높은 건물들이다. 이들 중 같은 해에 풍수재가 2회 발생하였다면 (예 : 87년 7월과 8월에 각각 1회씩) 다른 해에 2회 발생된 물건에

〈표 6〉 지역별 업종별 현황

(금액단위: 천원)

구분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계
아파트	발생 건수	307	359	27	46	3	1	1	744
	지급보험금	9,122,772	703,239	255,159	52,558	3,831	9,388	86	10,147,033
시장	발생 건수	20	2	0	0	1	0	0	23
	지급보험금	1,076,938	3,136	0	0	1,685	0	0	1,081,759
옥판·상가	발생 건수	18	0	1	0	0	0	0	19
	지급보험금	1,322,745	0	40,828	0	0	0	0	1,363,573
4층	발생 건수	207	159	30	3	0	13	1	413
	지급보험금	3,714,226	2,126,974	47,570	1,852	0	32,814	21,095	5,944,531
창고	발생 건수	0	12	0	0	0	0	0	12
	지급보험금	0	202,667	0	0	0	0	0	202,667
병원	발생 건수	4	7	3	0	0	0	0	14
	지급보험금	216,156	30,077	25,217	0	0	0	0	271,450
학교	발생 건수	3	1	0	0	0	0	0	4
	지급보험금	16,668	229	0	0	0	0	0	16,897
호텔	발생 건수	3	6	1	0	0	0	0	10
	지급보험금	124,927	251,257	1,799	0	0	0	0	377,983
극장	발생 건수	0	1	0	0	0	0	0	1
	지급보험금	0	3,510	0	0	0	0	0	3,510
국유	발생 건수	6	17	2	0	0	0	0	25
	지급보험금	472,214	124,893	20,032	0	0	0	0	617,139
유흥·음식점	발생 건수	0	1	0	0	0	0	0	1
	지급보험금	0	11,643	0	0	0	0	0	11,643
공장	발생 건수	89	503	79	11	9	2	1	694
	지급보험금	1,919,512	27,673,058	1,063,307	31,608	92,026	7,339	908	30,787,758
계	발생 건수	657	1,068	143	60	13	16	3	1,960
	지급보험금	17,986,158	31,130,683	1,453,912	86,018	97,542	49,541	22,089	50,825,943

(예: 87년 7월과 91년 8월) 비하여 풍수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해에 2회의 풍수재가 발생된 물건의 대부분이 87년 7월과 8월에 발생된 것으로서 이 시기에 우리 나라는 대단히 큰 위력을 갖는 태풍과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해에 2회의 풍수재를 겪었다면 자체적으로나, 정부적 차원에서 풍수재 예방 대책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풍수재가 3회 이상 또는 4회 이상 발생된 물건들에 대하여는 위험의 역선택 가능성이 2회 이상 발생된 물건에 비하여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풍수재가 2회 이상 발생된 물건들은 손실의 빈도(Frequency)가 높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들 물건의 Underwriting시에는 위험관리 담당 직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풍수재 물건의 손해율 및 손율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의 손해사정 자료로부터 풍수재 물건의 손해율 조사에 착수 하였으나,

87년도는 풍수재 물건이 대단히 많고, 이들의 손해율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87년도 분석분은 차년도에 반영키로 하고 우선 분석이 완료된 4개년의 자료만 제시하기로 한다.

〈표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풍수재로 인한 지급 보험금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91년도에는 지급 보험금액이 대폭 증가되었다. 이는 풍수재 피해액

〈표 7〉 풍수재 물건의 보험금 지급내역

연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지급보험금
'88	233,308,713	146,118	60,336
'89	428,815,032	834,998	3,907,799
'90	329,838,596	420,905	4,792,053
'91	411,191,043	1,183,500	12,862,555

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겠으나, 보험가입자의 풍수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된다.

〈표8〉에서는 풍수재 물건의 손해율 및 손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해율의 증가 추세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어 풍수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급 보험금이 1억원 이상인 물건과 풍수재가 2회 이상 발생된 물건의 자료는 본 협회 풍수재 손해사정보고서의 자료중에서 발췌한 것이며, 풍수재가 다수 발생된 건물의 자료는 본 협회와 보험개발원 자료(89년 4월부터 91년 3월까지의 사원사의 풍수재 발생물건 현황) 1,960건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 자료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지역중 배수 펌프장을 신설하고 제방 공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재시설을 보완 증설한다면 풍수재 위험은 다소 감소될 것이다.

12. 맺는 말

과거의 재해 사례를 통한 특수

〈표8〉 풍수재 물건의 손해율 및 손율

연 도	손해율(%)	손율(%)
'88	41.29	0.027
'89	468	0.91
'90	1,138.50	1.45
'91	1,086.8	3.13

註 : 손해율 = 지급보험금/보험료 × 100(%)
손 율 = 지급보험금/보험가입금액 × 100(%)

건물의 풍수재 위험 관리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을 수 있었으며, 이들 결과들은 특수건물에서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풍수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특수건물의 화재 보험으로 풍수재 손해를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84년 이후' 91년까지 풍수재가 발생된 1,960건을 대상으로 분석에 임하였으며, 2회 이상 풍수재 발생 물건은 본 협회의 손해사정 보고서만을 참조하는 등 분석 결과들의 신뢰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풍수재 지급 보험금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8년간 풍수재 지급 보험금의 연 평균액은 약 47억원이며, 같은 기간 화재 지급 보험금은 약 1백2억원으로 풍수재가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2%에 해당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 비율이 48.6%로 증가 하였으며, '91년의 풍수재 지급 보험금이 1백37억원이나 되어 화재로 인한 지급 보험금을 47억원 초과하는 등 비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주고있다.

둘째, 풍수재는 시기적, 지역적인 편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월별 피해 현황을 보면 7, 8, 9월에 총 발생 건수의 89.4%가 발생하였다.

(금액단위 : 천원) 이 때의 피해액은 93.16%로 풍수재 발생 시기가 7, 8, 9월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역별 현황을 보면 부산 지역에서 총 발생 건수의 54.49%가 발생하였으며, 부산 북구 감전동의 경우는 총 137건의 풍수재가 발생하는 등 풍수재 발생이 지나치게 시기적·지역적으로 편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2회 이상 풍수재가 발생된 물건이 지나치게 많다.

본 협회 손해 사정 보고서 상에 나타난 1,663건 중 2회 이상 풍수재가 발생된 물건수가 251건이나 되며, 부산 지역의 일부 건물은 6회의 풍수재가 발생하는 등 보험의 기본 원칙인 우연성의 결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른 재해와는 달리 그 위험의 예측이 훨씬 용이하고, 또 예측의 정확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풍수재 위험 관리 활동을 조금만 더 강화한다면 풍수재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풍수재 관련 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

화재와 풍수재는 그 위험이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약관으로 담보하고 있으며,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한 풍수재를 화재 보험 요율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건물의 화재 보험으로 풍수재를 담보하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풍수재에 대하여 향후 풍수재 위험을 담보하는 단독의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